

울릉도·독도 관광현황과 과제

박선희*

[국문초록]

호주에서 발간되는 세계적 여행전문지 Lonely Planet Magazine은 2011년 지구 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10대 비밀의 섬(10 Best Secret Islands Around The World)을 선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울릉도가 포함되었다. 울릉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 이사부(異斯夫)가 목우사자(木偶獅子)를 앞 세워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한 이래로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극동의 영해를 지키는 섬이다. 최근 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37만 명을 넘어섰고 2005년 3월 24일 독도 입도 규제 완화 이후 2013년 4월 18일 입도 100만명을 기록하였다. 울릉도와 독도의 방문객이 급증한 데는 일본 시마네현(島根)에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인의 자국 영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관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 변화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500여 년 전부터 우리의 땅으로서 극동을 지켜온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관광의 대표 지역으로 부상시키고, 생태관광(eco-tourism),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해양관광(marine tourism) 등 세계적 관광추세에 부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특성화하여 신관광(new tourism)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울릉도와 독도의 전반적인 관광여건을 검토해보고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관광수요를 유인할 수 있고 울릉도와 독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울릉도와 독도를 수토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여객

* 강원대 겸임교수

터미널을 2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와의 연계 관광에 대해 검토해보고 다가오는 해양문화관광시대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울릉도와 독도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Healing Tour 기반 조성과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울릉도에는 투막집이라는 독특한 주거시설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과 해산물들이 Local Food를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장기체류형의 관광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연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 개발 컨셉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울릉도 관광특산품 연계 판매, 지역화폐 공동사용 등 배후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울릉도와 독도의 공동홍보, 강원도 삼척시의 오분항, 소공대, 새천년도로, 정라진 등을 연결한 관광벨트화 및 새로운 길문화 조성, 야간 운항로 개설로 새로운 관광상품 제공, 울릉도와 독도의 교육대상 확대, 강원도 내 교육기관을 통한 독도 교육 의무화 등으로 강원도와 울릉도, 독도를 연계하고 관광활성화시킨다.

주제어 : 관광자원 현황, 관광기반시설 현황, 관광지 현황, 관광상품 현황, 홍보 및 교육활동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울릉도·독도의 관광현황
- III. 울릉도·독도 홍보 및 교육 활동
- IV. 울릉도·독도와 강원도의 관계
- V. 강원도와 연계한 울릉도 V 독도 관광 활성화 과제

I. 들어가는 말

호주에서 발간되는 세계적 여행전문지 Lonely Planet Magazine은 단순한 여행지 추천이 아닌 여행객의 관심거리와 스토리를 갖춘 값진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세계 배낭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가이드북이다. 2011년 이 잡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10대 비밀의 섬(10 Best Secret Islands Around The World)을 선정하였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의 하롱베이(Halong Bay)¹⁾와 쏬다오(condao)섬,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현의 야에야마(入童山)군도²⁾, 우리나라의 울릉도가 선정되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공원으로 등록된 베트남의 하롱베이, 일본의 최남단 군도에 위치한 야에야마, 한국의 울릉도는 모두 때 묻지 않은 자연자원과 지리적 특성에 순응한 섬 주민의 생활상이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특히 신라 지

1) 베트남 북부에 있는 아름다운 만(灣)으로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있다. 베트남 제 1의 경승지로, ‘바다의 계림桂林’이라고 불린다. 1962년 베트남의 역사·문화·과학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그 아름다운 경관으로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 목록 가운데 자연공원으로 등록되었다.(다음 백과사전)

2) 야에야마 제도(일본어: 八重山諸島 야에야마쇼토[*], 야에야마어: Yaima, 오키나와어: Ēma)는 일본 오키나와 현에 있는 군도이다. 섬들은 일본 본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 최남단의 유인도인 하테루마 섬과 일본 최서단의 요나구니 섬을 포함한다. 야에야마 제도는 오키나와 섬보다 타이완에 더 가깝다.(다음 위키디백과사전)

증왕 13년(512년)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 이사부(異斯夫)가 목우사자(木偶獅子)를 앞세워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한 이래로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극동의 영해를 지키는 섬이다. 세계적인 여행전문지가 흥미로운 비밀의 섬으로 울릉도를 선택한데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적 흥밋거리, 전설과 민담 등의 인문자원, 최근의 이슈거리 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37만명을 넘어섰고 2005년 3월 24일 독도 입도 규제 완화 이후 2013년 4월 18일 입도 100만명을 기록하였다. 울릉도와 독도의 방문객이 급증한 데는 일본 시마네현(島根)에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인의 자국 영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관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 변화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 시간의 증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관광의 형태는 대중화되었고, 경치관람·유람, 보양, 드라이브, 휴식 등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형태에 식상한 관광객들은 관광 경험의 양적 증가가 아닌 새로운 관광거리를 추구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 체험하여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차별화된 특수목적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을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관광을 즐기는 우리나라의 관광객도 내륙지방이나 제주도를 비롯한 서해안과 남해안의 섬이나 해안지역에서의 관광과 놀이시설을 즐기는 정도였고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안은 그다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락중심의 관광패턴

에서 문화 및 생태 체험 등으로 다양화 된 관광객의 욕구 변화는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 지역주민의 생활상, 전설과 민담, 기후 등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영유권에 대한 일본과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500여 년 전부터 우리의 땅으로서 극동을 지켜온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관광의 대표 지역으로 부상시키고, 생태관광(eco-tourism),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해양관광(marine tourism) 등 세계적 관광추세에 부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특성화하여 신관광(new tourism)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성과 존재의미를 재조명하는 다각적인 과정 속에서 가치 혁신을 위한 관광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바른 역사정립의 자주의식을 굳건히 해야 한다. 세계적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관광 특히, 독도 관광의 활성화는 우리 역사와 지리적 개념의 정당성과 보편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는 환동해권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관계적 요건과 섬 전체가 천혜의 청정자연자원과 독특한 인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토지자원과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에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울릉도와 독도의 전반적인 관광여건을 검토해보고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관광수요를 유인할 수 있고 울릉도와 독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울릉도와 독도를 수토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관광객들

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을 2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와의 연계 관광에 대해 검토해보고 다가오는 해양문화관광시대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울릉도·독도의 관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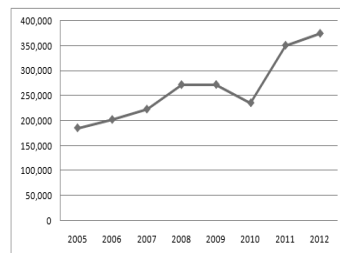
다양한 관광현상의 관점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관광객 추이 등의 현황과 자원 및 상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관광활동의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1.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객 현황

울릉군에서 제공하는 관광객 추세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집계된 관광객 수는 총 375,177명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내·외국인 관광객 울릉도 입도 변화 추이

년도	내국인	외국인	합계
2005	185,163	444	185,607
2006	201,825	603	202,428
2007	222,631	577	223,208
2008	271,464	838	272,302
2009	271,717	838	272,555
2010	235,860	386	235,860
2011	351,370	975	351,370
2012	374,140	1,037	375,177



출처 : 울릉군청 홈페이지, 통계연보(2013)

2012년을 중심으로 월별 입도 관광객 분포를 살펴보면 12월~3월 입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4월~10월까지의 입도 관광객이 집중하고 이 시기에 있어서도 7월~9월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울릉도의가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선박으로 밖에는 접근이 불가능한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 여객선이 강원도의 묵호, 경상북도의 포항과 후포항으로부터 출항하지 못할 경우 입도에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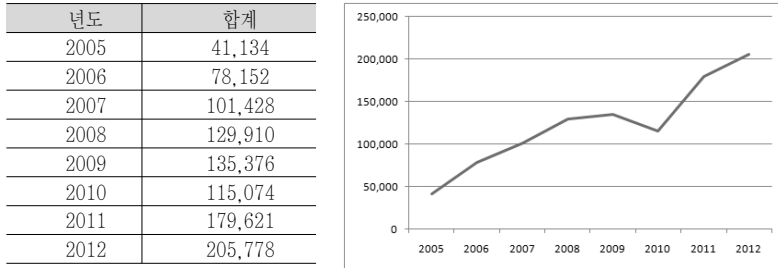
〈표 2〉 월별 내·외국인 관광객 울릉도 입도 현황(2012년도)

2012년 월별	관광객수			2012년 월별	관광객수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375,177	374,140	1037	-	-	-	-
1월	2,067	2,067	0	7월	36,715	36,570	145
2월	3,281	3,281	0	8월	46,717	46,643	74
3월	17,404	17,361	43	9월	32,799	32,571	228
4월	45,261	45,246	15	10월	53,967	53,830	137
5월	70,307	70,111	196	11월	13,779	13,755	24
6월	51,309	51,134	175	12월	1,571	1,571	0

출처 : 울릉군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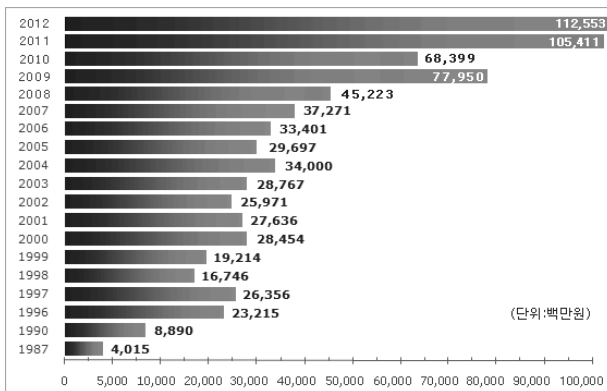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2005년 3월 24일자로 공개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일반관광객의 경우 1회 47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후 8년만인 2013년 4월 18일자로 독도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2005년 당시 41,134명이 독도를 방문한 것과 비교할 때 많은 수의 관광객이 독도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³⁾.

〈표 3〉 독도 방문객 입도 추이



출처 : 독도관리사무소 내부자료(2013)

울릉도의 관광수입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울릉도의 산업별 소득을 보면 어업 173.7억원, 농업 139.2억원, 축산 19.8억원, 광업 및 제조업 287.6억원, 관광업은 1,054억원⁴⁾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광수입 변화 추이와 관광객 입도 추이(〈표 1〉)를 비교해보면 관광수입은 관광객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울릉도의 관광수입 추이

3) 울릉군 보도자료 2013. 4. 19

4) 2013 울릉비전, 울릉군

2.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 자원 현황

가. 자연자원

울릉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이기 때문에 분지, 폭포, 계곡, 약수, 기암괴석, 주변 섬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섬 전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울릉도의 산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가파르고 높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성인봉을 중심으로 나리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알봉, 송곳산, 미륵산, 형제봉, 천두산 등은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울릉도에는 나리분지 이외에 평지가 거의 없고 산간계곡과 절벽이 많아 큰 하천은 없으나 봉래폭포, 복호폭포, 해상폭포 등의 폭포와 만물상, 촛대암, 사자바위, 투구봉 등의 기암괴석이 산재해 있다. 독도를 비롯한 유인도와 관음도를 비롯한 40여개의 무인도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은 울릉도 일주의 주요 자원이 되고 있다. 봉래폭포 근처의 풍혈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을 저장해 놓는 천연냉장고로 활용해왔으며 더운 여름철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풍혈 근처에 삼림욕장을 개설하여 성인봉까지 오르지 않더라도 산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산지형의 대표적 지형인 주상절리는 사동해안 도로변에 소규모로 발달해 있으며 가두봉과 통구미 사이에는 떨어진 절리괴가 해안에 굴러내려 있다. 대표적 주상절리 지형은 남양의 비파산 동사면에 폭 40~100m, 너비 500~600m로 넓게 발달하여 장관을 이루어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높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 12월 27일자로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⁵⁾

5)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

에 의거하여 울릉군 전 지역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였다. 이로써 울릉도의 육상과 해상의 자연자원의 대부분이 지질유산자원으로 보전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질명소로 지정된 곳은 울릉도 19개소⁶⁾, 독도 4개소로 모두 23개소에 속한다.

지질공원의 지정은 울릉도와 독도에 있어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질공원에서의 다양한 학술연구 및 조사, 지식·정보의 보급,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제협력, 관리·운영 등에 대한 지원⁷⁾이 가능하며, 지질공원해설사⁸⁾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⁹⁾하도록 한다.

계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6) 울릉도(19개소) : 봉래폭포, 저동 해안산책로, 도동 해안산책로, 거북바위 및 향나무자생지, 국수바위, 버섯바위, 학포 해안, 황토굴, 태하 해안산책로 및 대풍감, 노인봉, 송곳봉, 코끼리바위, 용출소, 알봉, 성인봉 원시림, 죽암몽돌해안, 삼선암, 관음도, 죽도
- 독 도(4개소) : 솟돌바위, 독립문바위, 삼형제굴바위, 천장굴
- 7) 자연공원법 제36조의 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 8) 자연공원법 제36조의 6(지질공원해설사)
- 9) 자연공원법 제36조의 7(비용부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은 울릉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며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특산품으로 가공되고 있는 식물의 경우 울릉도의 독특한 기후대에서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사회적 성향과 어울리는 로컬푸드(local food)라 볼 수 있다.

울릉도의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자원은 울릉 8경¹⁰⁾에도 잘 나타나는데 각 지역의 자연자원과 계절적 풍경이 잘 표현되어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성화가 가능하다 하겠다.

〈표 4〉 울릉도의 자연 자원 현황

구 분	소 재 지
산봉우리 및 산악	성인봉, 알봉, 송곳산, 미륵산, 형제봉, 천두산, 망향봉, 가두봉, 초봉, 노인봉 등
폭포	봉래폭포, 복호폭포, 해상폭포
분지	나리분지
도서	독도, 죽도 등 유인도 3개, 관음도 등 무인도 40개
계곡	오박골
약수	도동약수, 내수전 약수
기암괴석	관음쌍굴, 삼선암, 만물상, 촛대암, 학포, 사자바위, 투구봉, 거북바위, 대바위(죽암), 공암(코끼리바위)
동물	흑비둘기, 습새, 바다제비, 꿩이 갈매기 등 63종
식물	너도밤나무, 섬버들, 울릉도 향나무, 주목, 만병초, 섬피나무, 털고로쇠나무, 섬개야광나무, 울릉국화, 섬백리향 등 750여 종
해변	내수전 몽돌해변, 통구미 해변, 추산해변
기타	풍혈, 태하황토굴

- 10) 도동모변(暮帆) - 도동항 석양 오징어배 출어 모습
저동어화(魚火) - 저동야간 오징어잡이 불빛
장흥망월(望月) - 사동에 뜨는 달
남양야설(夜雪) - 겨울철 달밤 남양의 눈꽃
태하낙조(落照) - 태하의 저녁 해지는 모습
추산용수(湧水) - 추산에 솟는 물
나리금수(錦繡) - 나리동 비단단풍
알봉홍엽(紅葉) - 알봉의 붉은 단풍

나. 인문자원

① 주거형태

울릉도는 본토와는 다르게 특이한 주거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우데기가 그것이다. 울릉도의 민가에서 방설·방우·방풍 등을 위해 본체의 벽 바깥쪽에 기둥을 세우고 새나 옥수숫대 등을 엮어 친 외벽을 우데기라고 한다. 우데기를 두른 투막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우데기는 울릉도 전역에 보편화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주로 다설 지역인 나리분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4점이 문화재로 지정(국가지정 제256호, 제257호, 시군지정 제182호, 제183호)되어 있다. 투막집은 울릉도의 기후에 순응한 지역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향후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귀중한 자산이다.



〈그림 2〉 울릉도 나리동 투막집(문화재청 홈페이지)

② 지정문화재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 지정문화재 현황은 <표>와 같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9점, 중요민속문화재 2점, 도지정 기념물 2점, 민속자료문화재 3점, 문화재자료 5점, 등록문화재 1점으로 총 22점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

<표 5>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구분		문화재 명	지정일
국가 지정 문화재 (11점)	천연기념물	제48호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1962.12.03
		제49호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
		제50호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너도밤나무군락	"
		제51호 울릉 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맹강나무군락	"
		제52호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
		제189호 울릉 성인봉 원시림	1967.07.11
		제237호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1971.12.14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1982.11.16
		제538호 독도 사철나무	2012.10.05
	중요민속 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2007.12.31
		제257호 울릉 나리동 투막집	"
지방 문화재 (11점)	기념물	제72호 울릉 남서동 고분군	1986.12.11
		제73호 울릉 현포동 고분군	"
	민속문화재	제56-1호 몸채, 제56-2호 헛간, 제56-3호 측간	1984.12.29
	문화재자료	제182호, 제183호 울릉 나리동 투막집	1986.12.11
		제411호 울릉도 태하리 광서명 각석문	2001.11.01
		제412호 울릉도 태하리 임오명 각석문	"
		제413호 울릉도 도동리 신묘명 각석문	"
	등록문화재	제235호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2006.03.02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③ 독도박물관

1997년 8월 8일 삼성문화재단이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개관한 후 울릉군에 기부한 독도박물관은 독도·울릉도 및 조선해(동해)와 관련한 해양 및 역사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며, 그 결과를



출처 : 독도박물관 홈페이지

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독도아카데미 해설사를 동반하여 섬을 관광하는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단체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및 유관기관에서 421기관 12,153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독도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와 관련한 다큐멘터리와 울릉도와 독도에 얽힌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플래시 무비로 제작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복이(안용복)와 강이(강치) 캐릭터를 제작하여 친근감이 들도록 하고 있다.



복이(안용복)



강이(강치)

바탕으로 전시·관리·교육·홍보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히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

④ 문화행사

문화행사로는 오징어축제, 우산문화제, 민속그네뛰기, 태하성하신당제, 울릉해변가요제, 회당문화제, 달맞이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울릉도의 특산품인 오징어를 소재로 한 오징어축제는 2001년 8월 처음 개최되었는데 야간에 오징어 조업 체험승선, 오징어 맨손잡기, 오징어 건조과정 체험 등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다.

대한 불교진각종의 종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탄생지로서 2001년 개최된 회당문화제는 종교적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나 음악 공연, 독도사랑 캠페인, 풍등 띄우기, 아트 풍선 만들기 등의 문화행사이다. 이 밖에도 울릉군민의 대동제인 회산문화제와 지역의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민속 행사인 태하성하신당제 등이 행해지고 있다.

⑤ 인물

울릉도와 독도는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울릉도를 우리의 땅으로 복속시킨 이사부, 일본과의 울릉도 영해 영유권과 관련한 인물로 안용복과 남구만이 있다.

이사부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의 영해로 복속시켰다. 이때 울릉도의 거주민들이 쉽게 항복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하자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협박하고 항복을 받아 내었다. ‘사이버 독도(www.dokdo.go.kr)’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보조캐릭터로 이사부를 신라군의 이미지를 살려 유쾌하고 귀여운 ‘태장군’ 캐릭터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울릉군과 자매도시의 연을 맺은 강원도 삼척시는 매년 이사부 축제를 개최하고 이사부공원을 조성하여 그의 업적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안용복은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일본 막부로부터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아내고 출어를 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민간외교관이라 불리고 있다¹¹⁾. 현재 울릉도에서는 그에 대한 애니메이션(10분)을 제작해 홍보 및 교육에 활용하고 안장군 캐릭터로 업적을 알리고 있다.

남구만은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로 다시 영의정에 기용되었으며 당시 대마도주가 동래부로 조선 어민의 죽도 출어금지 서계를 보내오자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회신을 보냈다¹²⁾고 한다.

⑥ 레저 & 스포츠

울릉도는 화산으로 형성된 가파른 산과 원시림이 있어 등산코스가 발달해 있다. 크게 성인봉등산코스와 미륵산 등산코스가 있다. 성인봉등산코스는 대원사코스(6시간), KBS중계소코스(6시간), 안평전코스(10시간)이며 미륵산코스는 5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이다.

등산로 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해안의 절벽을 따라 트래킹코스를 개설해 놓았다. 도동부두 좌해안을 따라 자연동굴과 골짜기를 연결하는 교량이 포함된 행남코스 (1시간 30분), 저동 내수전 고개-일출전망대(도보 20분), 내수전 일출전망대-석포마을(도보 1시간 30분), 월간 ‘산’ 지가 선정한 우리나라 10대 절경 중 하나인 울릉도 북면의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풍감 코스(30분)이다. 그 밖에도 자전거를 이용한 트래킹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바다자원을 이용한 바다낚시와 스킨스쿠버, 육지와 먼거리에 있

11) 울릉군지(2007), pp.165-167.

12) 울릉군지(2007), p.169

으며 화산지형의 특성을 갖춘 섬 전체의 자생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탐방, 농어촌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⑦ 기타

그 밖에도 울릉도 개척기에 대한 이야기, 도동약수터와 성인봉에 대한 전설, 호박엿과 명이나물에 얽힌 전설, 동백꽃에 얽힌 슬픈 사연 등의 이야깃거리와 성하신당 등의 전통적 풍습 등이 문화자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안용복기념관을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하여 운영을 준비중에 있다.

다.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기반 시설

①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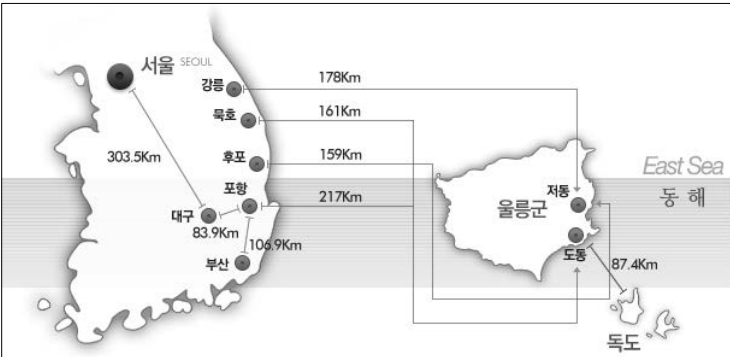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기반 시설로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이 호텔 4개소, 여관 48개소, 민박 144개소로 총 199개소이며,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12개소, 일반음식점 66개소, 향토음식점 24개소로 총 102개소이다. 대아호텔리조트의 경우 (주)대아고속해운에서 2004년 5월 사동 새각단 관광단지 내에 건립한 것으로 150개의 객실에 동시 수용인원 430명 규모를 갖추고 스크린 골프장, 대회의실,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여관과 지역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크고 작은 규모의 민박 등이 있다. 또한 독도에는 지상 4층 규모의 주민숙소를 2011년 5월 2일 준공하여 입도객들의 신청을 받아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6〉 울릉도 숙박 시설 및 음식점 현황

구 분	업 소 명
숙박시설 (총199개소)	호텔 대아호텔 리조트, 마리나관광호텔, 울릉비취호텔, 울릉호텔
	여관 K모텔, 가고싶은 바다섬모텔, 거북모텔, 경일장여관, 경주모텔, 낙원장여관, 남양장 여관 등 48개소
	민박 39호민박, 40호민박, 99호 민박, 가나안민박, 간령민박, 봉래민박 등 144개소
	관광펜션 바다풍경관광펜션, 산새소리펜션, 울릉드림관광펜션
음식점 (총102개소)	모범음식점 에피앙, 향토회식당, 울릉약소마을, 해운식당 등 12개소
	일반음식점 해동각, 오션한식뷔페, 돌섬식당, 울릉도 호랑약소플라자 등 66개소
	향토음식점 흥천뚝배기, 향우촌, 정이품식당, 울릉회센터, 울릉도관광농원식당 등 24개소

② 교통시설

울릉도에 입도할 수 있는 방법은 선박을 이용한 해로가 유일한 것으로 경북 포항, 울진의 후포항, 강원도의 묵호항, 강릉 안목항이 터미널 시설을 갖추고 입도객을 수송하고 있다. 각 터미널에서의 거리는 포항-도동 217km, 후포-저동 159km, 묵호-도동 161km, 강릉-저동 178km, 도동-독도 87.4km에 이르며 본토에서 울릉도까지 약 3시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림 3〉 울릉도 해로

현재 운행 중인 선박은 6척으로 강릉-울릉 간은 씨스포빌(주)의 씨스타호, 포항-울릉 간은 동해해상해운(주)의 오리엔트호와 (주)대아고속해운의 썬플라워호, 묵호-울릉 간은 (주)대아고속해운의 오션플라워호, 씨플라워호, 후포-울릉간은 동해해상해운(주)의 우리호가 있다. 여객선 이용은 기상변화로 인해 운행 시간 지연, 결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름 성수기에는 왕복 운항회수를 하루 1회를 기준으로 늘리기도 한다. 그 밖에 울릉도의 입도 후 해상로를 이용한 관광은 섬 일주 유람선과 죽도 왕복 유람선, 독도 방문 유람선이 있다. 약 2시간이 소요되는 코스로 도동항-사동-통구미-남양-구암-태하-현포-공암-추산-천부-삼선암-관음도-죽도-저동을 잇고 있다.

육상의 교통시설은 버스, 택시, 렌터카와 관광버스, 자가용 등을 이용한 관광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울릉도의 육로는 울릉읍의 내수전에서 북면의 섬목 구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구간이 연결되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한 일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육로의 연결구간은 도동-사동-통구미-남양-사자바위-투구봉-곰바위-태하성하신당-현포령-현포고분-송곳봉-천부-나리분지를 잇고 있다.

이 밖에도 도동부두 좌측해안을 따라 개설된 산책로와 천부-성인봉-도동을 잇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원시림과 해양의 비경을 즐길 수 있다.

울릉군 보도자료(2013.7.9)에 따르면 포항-울릉간 직항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울릉공항건설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키고 관광기회를 확대시켜 울릉도를 명품관광 도서의 반열에 오르게 할 것이다. 울릉군은 향후 5년 동안 4,932억원을 투자하여 50인

승 규모의 소형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활주로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림 4〉 울릉도 공항 건설 예정지(보도자료)

③ 기타 시설

태하 향목 관광모노레일은 서면 태하마을 앞바다와 태하 향목지구 구간에 모노레일카 2대를 설치하여 총연장 304km를 운행하며 천연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된 대풍감향나무 자생지와 울릉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하 향목 정상부에서의 해안 비경은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선정한 한국 10대 비경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독도해맞이전망대 케이블카는 독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정상으로 이동시켜 주는 수단이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동안 망향봉, 해안전망, 독도 등을 볼 수 있으며 독도박물관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그림 5〉 태하향목관광노레일



〈그림 6〉 독도해맞이전망케이블카

④ 관광 특산물

울릉도의 특산물로는 미역취, 부지깥이, 삼나물, 참고비, 섬더덕 등 청정 해풍을 맞고 자란 산나물과 우산고로쇠, 울릉약소와 같은 축산임산물과 오징어와 각종 해산물이 있다. 또한, 가공식품으로는 호박을 주원료로 한 호박제리, 호박엿, 호박조청과 과거 울릉도 주민에게 구황작물로 큰 역할을 했던 명이(산마늘) 절임, 섬더덕을 활용한 제리와 즈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마레솔트, 생수(슈어)를 생산하고 천연기념물 제52호로 지정된 섬백리향을 활용한 비누, 향수, 손세정제, 클렌징폼을 관광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⑤ 향토음식

꽂치물회는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봄철에 갓 잡은 꽂치를 바로 포를 떠서 살짝 급랭시킨 후 야채와 양념장을 곁들여 먹는다. 그 밖에도 따개비 칼국수/따개비 밥, 홍합밥, 오징어내장탕, 활어회/물회, 산채비빔밥, 약소불고기 등이 있다.



라. 관광지 지정현황

울릉도의 관광지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동리의 도동약수, 봉래폭포, 사동리의 새각단, 오박골, 나리분지, 저동의 죽도 등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새각단 해양리조트의 경우 관광객이 성수기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개발업자에 의해 리조트를 중심으로 체재형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주)대아고속해운이 대아리조트를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다.

죽도지구는 전망대, 원시림, 농촌체험, 수목원, 조경휴양지, 야영장, 낚시터 등 울릉도 본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원형을 유지한 채 대부분 휴게시설이나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관광활동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도동 약수지구는 독도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홍보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삭도시설을 통한 망향봉 등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봉래폭포지구는 산악탐방과 휴양형의 관광지구로 주사곡 풍혈을 중심으로 독특한 산림휴양기능을 강화시킨다. 오박골 지구는 숲속의 휴식처로 숙박시설을 보강하여 새각단 관광지구의 보완적 기능을 부여한다.

나리분지 지구는 용수공급, 관광시설 등을 원시 생태계 보전을 감안하여 소규모 배치하고 숙박기능을 배후 취락지역에서 분담하고 야영장을 갖춘 자연체험 관광지로 조성하였다.

그 밖에도 서면 태하리 일원에 개척의 뿌리공원이라는 주제로 울릉도 개척 당시의 역사적 고증장소로 활용하며 인접한 태하리 취락지구에 분담하여 숙박시설 설치는 배제한다. 최소한의 경관 조망을 위한 휴게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2020년에 사업을 종료한다. 울릉도의 꼬리에 해당하는 섬목, 관음도 지구는 섬 탐방 및 경관 감상을 위해 안전시설, 공공시설, 휴게소, 전망대, 대피를 겸용한 통나무집 등의 편의시설만을 배치하여 숙박, 위락, 상업시설은 저동과 도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동의 행남지구는 자연 훼손 최소화를 목표로 소규모 피크닉장, 산림욕장, 전망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사동 간령은 인접 취락지와 연계할 수 있는 도로 및 산책로를 개설하고 생태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표 7〉 울릉도 관광지 지정 및 개발 현황

관광지명	위치	면적(㎡)	주요 자원 및 시설	사업기간
도동약수지구	울릉읍 도동리	34,520	도동약수터, 기념비 광장, 독도박물관, 삭도시설	-
봉래폭포지구		68,219	봉래폭포, 풍혈, 산림휴양기능 강화	-
사동 새각단 지구 오박골	울릉읍 사동리	166,060	사동천변의 구릉지, 리조트 유치	1989~2011
		49,834	계곡	-
나리분지지구	울릉읍 나리	253,061	나리분지, 너와집, 투박집, 야영장	-
죽도지구	울릉읍 저동	207,868	죽도, 조경휴게시설, 선착장, 대피소, 전망시설	1987~2006
도동 행남	울릉읍 도동리	244,400	산림욕장, 소규모 피크닉장	2002~2010
사동 간령	울릉읍 사동리	56,450	도로 및 산책로 개설, 자생식물원, 심식물 생태공원	2002~2007
태하 향목	서면 태하리	130,000	휴양시설, 전시 및 관람 시설, 개척 당시의 역사적 고증장소로 활용	2010~2020
섬목, 관음도	북면 천부리	124,000	휴양시설, 산책로, 전망대, 대피소	2010~2020

출처 : 유영준(2007), p.181, 울릉군지(2008)

3.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상품 유형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다. (주)대아고속해운이 쾌속선을 이용해 운항을 시작한 이래로 대량의 관광객이 입도하였다. 접근성이 용이해진 이후 관광수입은 극대화되었으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1박2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경관을 관람 및 유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1박2일 코스 : 출발지 여객터미널(강릉, 묵호, 후포, 포항) - 육로 A 코스¹³⁾(약5시간 소요) - 취침 - 선택관광(독도 or 성인봉 등반) - 개별 육로 B 코스¹⁴⁾ - 울릉도 출항 후 해산

○2박3일 코스 : 출발지 여객선터미널(강릉, 묵호, 후포, 포항) - 육로 A 코스 - 취침 - 선택관광(독도 or 성인봉 등반) - 개별관광(독도기념관/향토자료관/케이블카 - 1시간 30분 소요) - 선택관광 or 자유시간 - 취침 - 육로 B 코스 - 자유시간 - 선택관광 or 자유시간 - 개별관광 - 울릉도 출항

여행사 패키지상품의 성수기 비용은 출발지, 선박 유형, 숙박지

13) 육로 A 코스 : 도동항-약수공원-사동새각단 관광지구 - 가두봉등대 - 통구미 몽돌 해변 -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 남양터널 - 사자바위 - 버섯바위 - 곰바위 - 학포 - 만물상 - 태하리광서명 각석문 - 현포고분 - 노인봉 - 평리마을 - 추산 몽돌해변 - 천부 - 죽암 몽돌해변 - 석포전망대 - 섬목(왕복코스)

14) 육로 B 코스 : 약수공원 - 독도박물관 - 풍혈 - 봉래폭포 - 내수전몽돌해변 - 내수전 (왕복코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선박 승선권과 숙박 및 식사를 포함하여 1인을 기준으로 1박 2일(1박4식)에 29만원~35만원, 2박3일(2박 7식)의 경우 35만원~49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여행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은 관광객의 출발지에서 목적지인 울릉도까지 다른 관광지를 포함하지 않고 직행하는 편이며 기상악화로 인한 시간 연장이나 결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여객터미널이 위치한 배후도시인 포항, 후포, 묵호, 강릉과의 연계 관광 상품이 전혀 없는 관계로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할 뿐이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를 입도하는 관광객을 경유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또 다른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소득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울릉도 관광지도(울릉군청 홈페이지)

Ⅲ. 울릉도·독도 홍보 및 교육활동

2005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이래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 수호를 위해 대국민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 생태, 민속, 해양 등의 분야에서 학술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한 학술대회 및 교육활동, 독도 교과서 제작 배포,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제작 무료 배포¹⁵⁾, 인터넷 사이트¹⁶⁾를 통한 독도 홍보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기 방송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독도체조¹⁷⁾, 울릉도 소개 프로그램¹⁸⁾ 故 조오련의 독도 수영, 가수 김장훈의 적극적인 독도지킴이 활동¹⁹⁾,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플래시 몹(flash mob)²⁰⁾과 SNS를 통한 각종 동아리활동 등이 적

15) Dokdo(독도라이브),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방위사령부, 독도사랑 카카오톡 테마, 독도의 진실, 독도@동해(독도연구소), 초등 독도톡, 독도위젯, 독도체험, 독립군 독도수호대, 독도앱-독도는 우리땅, 독도체험관 등 50여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16) 외교부 독도, 독도연구소, 독도의 진실, 독도사랑회, 독도본부, 독도연구센터 등의 웹사이트 및 카페, 블로그 등이 있다.

17) 2013. 7. 7 MBC ‘우리들의 일요일 밤 - 진짜사나이’편에서 태극공병여단 청룡부대에 서의 독도체조가 방영되었다.

18) KBS 2TV ‘1박2일’, 2013년 3월 27일 방영분

19) 김장훈은 외국 잡지에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광고를 게재하고 ‘독도를 콘서트하다’는 제목으로 독도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독도 수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본적을 독도로 옮겼다.

20) 플래쉬몹(Flash Mob)은 순간을 의미하는 flash와 군중을 미치는 Mob의 합성어로 인터넷에서 사전에 공지된 지령에 따라서 특정한 시간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특정시간동안 그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흩어지는 행위(모임)을 의미한다. 플래쉬몹의 어원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flash crowd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smart mob에서 유래되었는데, 2003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 현상을 소개하였던 인터넷 미디어 치즈비키가 보도시에 플래쉬몹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 처음 시도된 플래쉬몹은 미국 뉴욕에서 사전에 이를 감지한 경찰에 의해서 무산되었으나, 이후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확산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플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으로 독도체험을 실시(2013.7.19), NH농협카드에서 독도문화체험원정대 파견(2013. 7), 독도마라톤 대회, 서울 YMCA 2013 청소년 독도사랑 캠페인, 독도지킴이 연예인 클럽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대학 동아리,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울릉도·독도와 관련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독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강원도민일보와 (사)한국이사부학회에서는 찾아가는 ‘이사부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전북 부안여고, 전주사대부고, 경기 구리고, 인천 연수여고, 경기 시흥은행고, 서울 상명고, 천안 중앙고 등 각 학교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이사부와 독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사부아카데미에서는 세계 13개국 43명의 외국인들로 구성된 교육생을 모집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IV. 울릉도·독도와 강원도의 관계

1. 역사적 측면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강원도의 관계는 신라 지증왕대부터이다. 울릉군지(2007)의 역사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증왕 13년 하슬라(현재 강릉)의 군주 이사부 장군에 의해 우산국(현 울릉도)가

래쉬몹이 성행하고 있다. (다음 지식인)

복속되어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되었고 고려 현종대에 여진족의 침입을 피해 도망한 우산국 주민을 예주에 편호케하였다고 한다. 이 때 예주 뿐만 아니라 평소 왕래가 있었던 평해, 영덕, 영양, 강릉, 양양, 삼척, 울진 등에 산재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 지역 중 교통편이 다소 용이했던 삼척, 울진 지역에 많은 수의 우산국 도망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본다. 우산국은 하슬라 주 즉 명주(강릉) 및 울진 등과 더불어 한동해(韓東海)의 방위체제의 한 축으로 구실을 하였을 것이다. 신라 때 명주는 9주의 하나이며 관내에 9군 25현을 두었는데 울진군은 9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울진군은 고려 때 울진현으로 강등되고 울릉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 인종 19년(1141)에 명주도의 감창사 이양실이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 이상한 과실 씨앗과 나뭇잎을 가져다 왕에게 바쳤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곳의 실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왕래가 잦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로활동, 약초, 해초, 목재 채취 및 진귀한 농산물 구입을 위해 빈번한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종 11년(1157)에는 명주도의 감창사 김유립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여 사민책을 고려하였으나 거주에 용이하지 않다는 김유립의 보고에 의해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강원도 무릉도(울릉도) 거주민들에게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하였는데 백가물 등 울릉도 주민들이 강원도 통주, 고성, 간성으로 옮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조선조에 와서는 울릉도에 대한 통치권이 강원감사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의 사료에 의하면 ‘우산과 무릉 2섬이 울진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강원감사를 역임한 박습이 태종 16년 삼척인 김인우를 안무사로 지목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실정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당시 강원도 관찰사의 감사는 여름철이면 강릉과 삼척 등의 영동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 울진현의 속도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박습의 명을 받아 울릉도를 조사하였던 삼척인 김인우는 만호(무관)로서 왜적의 방비를 위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에 관한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울릉도에는 군역을 피해 도망한 육지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울릉도에 터를 잡으면 거주민이 많아지게 되고 왜구들이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쇠환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울릉주민 쇠환을 위한 안무사 파견 시에도 군기와 화포는 강원도의 삼척, 울진, 평해 등의 관소에 소장한 것을 충당하였고, 군량은 울진 창고의 곡식을 주게 하였을 것이다.

광해군 5년(1613) 삼척영장 김연성이 감사 180명과 포수 80명을 거느리고 울릉도의 정세를 살피러 갔으며 조선 후기의 숙종 20년(1694) 삼척첨사 장한상이 울릉도에 수토하러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부터 매 2년 혹은 3년에 한번씩 강원도 관찰사가 삼척 영장과 월송포 만호를 지휘하여 실시했으며, 수토군은 강릉, 양양, 삼척, 울진사람으로 편성했다. 이후에도 삼척영장 구억, 김최환, 이보국, 이경정, 정재천 등에 의해 울릉도가 수토되었다.

고종대에 와서 울릉도 주민이주를 위해 고종 19년(1882) 울릉도 개척령을 반포하고 전석규를 도장으로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이듬해(1883) 16호 54명을 이주시켰다. 이 때 강원도 강릉 출신의 홍경섭, 최재흡 2가구가 포함되어 그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였다. 고종 32년(1895) 삼척영장 겸임 도장제에

서 전임도장을 임명하고 도장을 도감으로 개칭하였으며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면서 강원도에 편입하고 행정구역을 남면과 북면으로 나누었으며 도감을 군수로 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6년 울릉도와 독도의 관할권이 경상남도로 이관되었고, 1914년에는 다시 경상북도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수시로 침탈하는 왜구로부터 방어하고 해역을 지켜온 것은 강원도였으며 주민 이주정책에서 강원도 사람들이 건너가 자리를 잡았다.

2. 민속 및 지리적 측면

1,500여 년 전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할 때 출항하였다 는 삼척시 오분동에는 마을을 지키는 서낭당이 있는데 울릉도에서 가져온 돌이 모셔져 있다. 삼척영장이 울릉도에 파견되어 수토하던 조선시대에 이씨 성을 가진 마을사람이 정라진 영장을 지내면서 울릉도에 갔다가 묘한 돌이 있어 가져다 집에 두었다. 그런데 집안사람에게 연고(병)가 생겨 무당에게 문의한 결과 그 돌을 오분리 성황당에 모시라 하여 현재 성황당 뒤 담 속에 안치해 두었다고 한다²¹⁾.

지리적 관계에 있어 울릉도는 강원도 삼척의 가시권내에 있는데 삼척시 원덕읍 소공대에서 맑은 날 울릉도를 선명하게 확인²²⁾할

21) 이승철(2004)

22) 사진 작가 이효웅은 2010년 8월 한달 간 삼척시 원덕읍 소공대에 올라 지속적으로 울릉도 촬영을 시도하여 9월 2일과 24일, 27일에 여러 컷을 찍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9월 27일 쾌청한 날, 일출을 전후해 찍은 사진은 성인봉을 중심으로 우뚝 솟아 오른 울릉도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잡혔다. -중략-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와현(瓦峴) 소공령(召公嶺) 정상에 있는 소공대(해발 320m)는 옛날 많은 시인·문사들이 울릉도를 바라보며 시를 읊은 명소인데, 조선 선조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1539년~1609년)는 울진지역으로 귀양을 가면서 남긴 망양정기(望洋亭記)에서 “영동지방에 귀

수 있다. 또한 울릉도의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을 해소해 주는 곳은 현재 여객선터미널이 위치한 인근의 해안지역일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강릉시의 강릉항(안목)과 동해시의 묵호항을 이용할 경우 총 5시간이면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다. 포항과 후포의 8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관광객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삼척시 원덕읍 소공대에서 이효웅 사진작가가 촬영한 울릉도(2010.9)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514>

3. 울릉도·독도 수호의 전초기지 : 삼척시

삼척시에서는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시키기 위해 출항하였던 오분항 정비, 이사부 공원 조성, ‘삼척 이사부 독도 축제’를

양갈 때 소공대를 지나면서 아득히 보이는 울릉도를 바라보니 마음이 저절로 기쁘고 행복해졌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소공대 아래 임원항은 울릉도까지 거리가 137km 여서 울진 죽변항(130.3km)과 함께 가장 가까운 육지로 꼽히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10.009.29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514>)

개최하여 국민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명실 공히 독도수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이라는 명칭으로 2008년에 시작한 이 축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여 ‘2013 삼척 이사부 독도 축제’로 개칭을 하고 해양수산부, 강원도, 해군1함대사령부,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의 후원을 받아 학술대회, 전시, 공연, 사자상 조각 체험,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사부와 독도를 홍보하고 있다.

V. 강원도와 연계한 울릉도·독도 관광 활성화 과제

2005년 한국해운조합이 섬을 다녀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섬과 가장 가보고 싶은 섬을 조사한 결과 울릉도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섬으로 20%가 응답해 제주도에 이어 2위를 했으며, 가장 가보고 싶은 섬으로는 34%로 1위를 하였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주)대양이티엔씨가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총 1,232명의 응답자 중 ‘섬에 가보고 싶다’가 61%이고, 그 중 ‘가보고 싶은 섬’은 울릉도가 24.4%로 1위를 차지하였고 독도가 11.5%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가본 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에서 울릉도는 5.5%로 가보고 싶은 섬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울릉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른 섬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²³⁾. 이 조사에 의하면 서울거주자가 울릉도를 방

23) 문화체육관광부, 대양이엔씨(2008)

문하고자 할 시 왕복 이동시간만 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조사 모두 가보고 싶은 이유로는 자연경관을 꼽았으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선박을 이용한 접근만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불편사항으로 꼽고 있다. 울릉도의 공항이 건설되고 항로가 개설되면 접근성은 더욱 완화된 것이며 시간과 비용면에서 불편함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기암괴석과 바다,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자원과 독특한 주거문화 및 음식 등의 인문자원이 산재해 있는 동해안 최고의 도서지역이며 세계적 여행잡지가 선정한 신비로움과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매력이 충분한 해양관광, 문화관광, 생태관광의 보고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1,500여년 전 강원도 하슬라 군주였던 이사부에게 울릉도를 복속케 하였으며 이후 강원도 관찰사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토록 하였다. 이는 강원도가 울릉도와 독도, 나아가 동해안 최전방 국토방위의 전초기지였으며 과거로부터 육지와의 교류의 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약한 지리적 접근성, 한정된 가용 토지자원,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부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 정책의 부재 등 관광개발 여건이 낙후되어 울릉도와 독도 관광의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를 울릉도·독도 입도의 출발지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관광측면의 연계가 전무한 탓에 경유지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점을 과제로 삼아 향후 강원도와 울릉도, 독도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해양·문화·생태관광을 모토로 한 동해안 최고의 관광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울릉도·독도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Healing Tour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의 공통점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고유한 문화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일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지는 성공한 지역의 하드웨어 베끼기형의 벤치마킹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관광객에게는 전혀 차별화되지 않은 관광상품 판매에만 집중하여 관광객의 외면을 받게 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국내의 관광지 중에서도 독특한 자연자원과 생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정책을 통해 관광지로의 변모를 모색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못한 물리적 시설물 설치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관광객의 성수기 집중현상에 대응하고 4계절 관광시설의 확보라는 취지하에 사동 새각단 관광지 내에 민간개발업자를 유치하여 32,000여 평의 대지에 연면적 2,200평의 건물과 야외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관광휴양시설인 리조트를 건설하였다. 유럽식의 건축물 외관은 지역실정과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용자 위주의 개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리조트는 지역주민의 직접 투자나 자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소득증대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은 지역 외로 유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리조트 내의 각종 문화편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낮아 지역과는 괴리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1,004개의 섬으로만 구성된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 전국 갯벌의 15%를 차지하고 갯벌과 염전, 자연경관과 식생, 습지, 조류 집단 번식지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국제

적 보고로 인류가 보전해야 할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것을 신안군이 지방행정의 최고 가치를 ‘환경과 생태’에 두고 갯벌 등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증도를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하였다. 이후 연8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훼손이 뒤따랐고 이에 전국 최초로 입장료를 받아 환경개선에 사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만족을 주게 되었다. 또한 ‘갯벌도립공원(2008)’,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제람사르습지(2011)’, ‘유기농 섬’ 등으로 지정되었고 ‘자전거의 섬’, ‘깜깜한 밤 별 헤는 섬(Dark Sky)’, ‘담배연기 없는 금연의 섬’, ‘친환경의 섬’, ‘자동차 없는 섬’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도 ‘천사섬 분재공원’ 조성, 전국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4년 연속 수상, 천사섬 갯벌 모실길 조성, 국내 최초 친환경세계 보급,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 철새 보전관리를 위한 학술 및 보전 활동의 결과 90억원을 투입하여 흑산 국제철새공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 참여와 행정과 학계의 적극적 지원에 의한 다양한 환경정책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켰고 지역소득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개발은 무엇보다 먼저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비전을 수립해야만 한다. 물리적 시설물에 있어서 울릉도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반영한 투막집과 너와집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유럽식의 경관을 벤치마킹한 수요자 중심의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울릉도와 독도의 스토리를 콘텐츠화하여 힐링(healing)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투막집, 너와집과 지역의 먹거리(Local Food)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강한 관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만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의 자연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개발 컨셉을 정립해야 한다.

유명한 유럽의 관광지를 무차별적으로 벤치마킹한 경관 조성이 아닌 울릉도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장기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관광행위의 목적은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관광객은 더 이상 대중화되어 있는 관광지의 건축물에 감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공격하는 먹거리에 만족해하지 않으며, 의미 없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재구입하지 않는다. 관광경험이 다양한 관광객들은 색다른 관광거리를 찾고 있고, 세계는 요즘 힐링(Healing)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울릉도 특유의 우데기를 덧입힌 투막집과 너와집은 기후에 순응한 지역민의 지혜가 담겨진 주거시설로 우데기는 가옥에 설치한 방풍, 방설, 방우 시설이다. 우데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된 건축재료로는 울릉도에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무, 흙, 석재, 옥수수대 등의 친환경 소재로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또한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산나물과 약초를 먹여 키운 소고기, 다양한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의 섭취는 친환경 먹거리라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울릉도의 친환경 투막집 관광단지와 힐링용 로컬푸드(Local Food)의 조화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휴식과 섭생에서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비수기 문제를 해결해 줄 힐링용 장기체류형의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나.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울릉도의 자연자원은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도 인정을 받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울릉도의 관광패키지가 자연자원을 감상하고 관람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앞으로는 학습하고 교육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촛대바위, 성인봉, 사자바위, 투구봉 등 자연자원과 관련한 전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성하신당, 개척기 실정, 명이나물 이야기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주도의 방언과 강릉사투리와 같은 울릉도만의 방언²⁴⁾을 콘텐츠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자립형 관광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많은 경우 개발의 과정에서 행정편의상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결과물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되지 않아 관광자원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1004섬은 지역민의 참여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지역민의 의견 반영,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관광콘텐츠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해야 한다.

지역민과 관광객의 이질감 최소화, 전통문화의 변형 방지, 지역주민의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애착심 고취, 나아가 관광소득이 지

24) 풍애, 푸애(눈보라), 수끼떡할매, 새(새별), 넙떡눈, 넙피기눈(함박눈), 목적, 미킨밭(목밭), 방구(바위), 빈달, 빈다래기(비탈), 산만디, 만디이(산등성마루), 배미재이(뱀장어)
- 울릉군지(2007)

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지역주민에 의해 자립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 리더 양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독도아카데미 해설사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구성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마을 해설사를 운영하여 지역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광객과의 소통을 유도해야 한다.

2. 강원도민과 울릉군민이 함께하는 관광홍보활동

2018년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강원도를 방문할 선수와 관광객에게 만족할 만한 관광 상품을 제공해야하며 그들로 인한 소득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타 지역에 비해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생태 자원 및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은 화산지형의 원시림을 자랑하는 울릉도와 독도는 관광상품 개발의 필연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양질의 자원이다. 또한 울릉도는 이미 해외의 관광객들에게는 흥미로운 비밀의 섬으로 소개가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울릉도 입도를 위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의 경우 포항과 후포항 보다는 묵호와 강릉이 접근성이 더 좋은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경유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홍보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울릉도 특산품을 연계도시에서 판매하도록 한다

울릉도 특산품은 먹거리 외에도 향수, 비누, 생수 등이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구입이 용이하지는 않다. 따라서 여객터미널이 있

는 묵호항이나 강릉항에서의 울릉도 특산품 판매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의 대형마트나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용이하게 한다.

울릉도와 강원도가 농산물, 해산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공동 개발하여 판매하고 두 지역의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여 공동 홍보의 효과를 취하도록 한다.

나. 지역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삼척과 울릉도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소득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두 지역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지역 간 통용되도록 한다면 지역상호 간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현금화, 지역 특산품 증정, 편의시설 할인권 제공 등의 이벤트를 제공하여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 SNS, 블로그, 카페,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배너나 관광 후기 우수자 선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광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직접적인 구전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망이다. 여행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해당 관공서의 홈페이지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관광을 경험한 이들의 후기를 더 신뢰한다. 강원도와 울릉도, 독도의 우수한 관광지의 홈페이지를 링크한다거나 관광 후기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특산품이나 지역 관광시설 사용권 등을 제공하여 재방문과 추천의도를 고취시킨다.

라. 자매결연을 맺은 삼척시민과 울릉군민이 1촌 맺기를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3. 울릉도·독도와 연계한 강원 해양문화 관광벨트화

강릉시에서는 ‘이사부크루즈’ 선박을 이용하여 일반 향차 코스(주문진항-영진항-연곡해변-사천항-경포도립공원), 양양 휴휴암 향차 코스(주문진항-소돌아들바위-남애해변-양양 휴휴암)을 왕복하는 2개의 코스를 운항중이다. 바다에서 육지의 해변을 바라보며 선상에서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가. 삼척 정라진, 오분항을 연계하는 이사부 항로를 개설한다.

이사부 장군은 1,500여년 전 삼척시 울릉도를 토벌하러 가기 위해 사자상을 제작하여 오분항에서 배에 싣고 출발하였다. 이사부 장군이 개척했던 울릉도까지의 항로를 따라 관광객들을 이동시켜줄 정기여객선 또는 부정기 여객선을 취항시킨다. 울릉도로의 접근은 이제 강원도 2곳과 경상북도 2곳으로 총 4군데에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은 비용과 시간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삼척에서 출항하게 되는 이사부항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타 항로에 비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스토리를 포함하게 되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매력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삼척 오분항은 주변에 정라진 수산시장과 오분해수욕장이 연계되어 관광객에게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

건을 갖추고 있으며, 과거 울릉도에서 가져온 돌을 모시는 성황당이 있어 마을 제의가 행해지는 곳으로 전통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화관광이 가능한 지역이다.

나. 야간 운항로를 개설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한다.

현재 울릉도 입도 선박은 각 터미널에서 1일 1회 운항하는 정기선으로 대부분 오전에 운항을 실시한다. 울릉도 입도선박의 출항시간은 묵호항 썬플라워 2호 8:20, 씨플라워호 09:00, 포항 09:50, 후포 09:30에 울릉도로 출항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의 경우 묵호항에서 해당시간에 출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벽 4시에 관광을 시작해야하며 승선 후 3시간여를 이동해야 한다. 여행은 고난, 고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이동하는데만 5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여행일정이 시작되어 석식 이후에 겨우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심신의 피로감이 더해지는 여행이라면 만족감을 극대화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야간 운항로를 개설하여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도 여유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발 전 사전교육 및 연계도시에서의 시내관광, 쇼핑과 식사를 통해 선박 승선지가 단순히 경유지가 아닌 관광의 첫 관문이 되고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삼척시의 육지길(오분항과 오분리 성황당, 이사부 공원, 소공대)과 울릉도·독도의 바다길(이사부 해로)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길문화’를 시도한다.

삼척시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이사부 장군이 출항한 오분항과 울릉도 돌을 모셔놓고 동제를 지내는 오분리 성황당, 이사부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이사부 공원, 쾌청한 날씨에 울릉도를 볼 수 있는 원덕읍 임원리의 소공대 등이다. 삼척의 자원과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상품화하여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길'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사부 공원-새천년도로-오분항-소공대-이사부 뱃길-울릉도 둘레길²⁵⁾-독도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탐방로 상품이 될 것이다.

라. 울릉도 관광상품을 구입한 관광객에게 강원도의 연계도시 시티투어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행사의 울릉도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여 관광을 하였거나 자유 여행을 경험한 관광객에게 강원도의 연계도시에서의 시티투어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울릉도와는 다른 관광경험을 통해 재방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4. 울릉도·독도 관련 아카데미 대상의 확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연생태적 지식 전달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현재 (사)한국이사부학회 주관의 '이사부 아카데미'와 독도박물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아카데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사부 아카데미는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능동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바 주로 학교와 관공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25) 울릉도 둘레길은 녹색섬 조성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총사업비 26.4억원을 투입하여 1차 내수전~석포(3.5km), 2차 태하령~나발등(2.06km), 3차 윗통구미~도동(4.5km), 4차 석포~섬목(0.8km), 석포~죽암(0.8km), 본천부~지객술(1.5km)을 잇는 탐방로이다. -울릉군 내부자료

하고 있으며 독도아카데미는 공무원 교육을 목적으로 울릉도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관심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교육생의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마을단위의 교육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아울러 아카데미 교육강사와 해설사 양성 과정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자 및 해설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학습은 역사적 정당성과 인식의 보편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교육 강사와 해설사의 조력은 양질의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긍정적 구전 효과는 관광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5. 강원도 내 교육기관의 이사부, 독도 교육 의무화

강원도 하슬라의 군주 이사부, 삼척인 김인우, 그 외 다수의 삼척감사였던 관리들, 울릉도로 이주해 정착한 강릉주민은 강원도와 울릉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왜구와 여진족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한 강원도는 오늘날 일본의 만행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독도교과서가 초, 중, 고 과정별로 제작되어 있고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독도영유권 분쟁 대상이 일본이라는 사실

만으로 분노할 뿐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독도영유권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이사부,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독도 수호 동아리를 결성하여 적극적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관내 대학교에 독도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여 대학생들에 의한 독도 학습 및 교육, 해설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름	박선희
소 속	강원대학교
이메일	dabin420@daum.net

논문투고일 : 2013. 7. 28 심사완료일 : 2013. 8. 8 게재확정일 : 2013. 8. 10

■ 참고문헌

- 강원도민일보·삼척시, 『울릉도·독도 품은 강원도 사람들(이사부 삼척 출항 우산국 복속 1500주년 기념자료집)』, 2012.
- 문화체육관광부·대양이티엔씨,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2008.
- 울릉군지편찬위원회, 『울릉군지』, 2007.
- 유영준, 「독도와 연계한 울릉도의 에듀테인먼트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연구』 제22권 (1), 2007, 177-197.
- 이승철, 『동해안 어촌당신화 연구』, 민속원, 2004.
- 이원갑 외,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황상일(2012), 「울릉도·독도 관광(Ecotourism)의 현황과 생태관광 기반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담론과 정책(제5권 1호)』, 189-210
- 울릉군청 홈페이지 <http://www.ulleung.go.kr/>
- 독도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dokdomuseum.go.kr/>
-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http://www.dokdo.go.kr/>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Task of Tourism in Ulleungdo–Dokdo

Park, Sun-Hee

In the “Lonely Planet Magazine”, the worldwide travel magazine published in Australia, Ulleungdo was selected among the 10 Best Secret Islands around the World in 2011. Ulleungdo is the island that protects the territorial waters of Korea’s far east along with Dokdo since Aseulaju governor Isabu conquered Usanguk in the 13th year (512) of Silla King Jijeung. Recently, tourists visiting Ulleungdo and Dokdo have surpassed 370 thousands people, and after deregulation of Dokdo entry on March 24th 2005, 1 million people made their entrance until April 18, 2013. The reason behind the rapid increase of visitors in Ulleungdo and Dokdo can be seen as increased interest of Koreans for their territory due to Japan’s declaration of Dokdo dominion by announcing “the Day of Dakesima” in 2005. Furthermore, the change in tourists’ desire to experience a new type of tourism can be another reas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tourism in order to lead the new tourism era by specializing tourism resources corresponding to the worldwide tourism trends including marine tourism, cultural tourism, eco-tourism, and to emphasize Ulleungdo and Dokdo, that have been protecting our country’s far east since 1500 years ago, as Korea’s representative tourist sites. With this in mind, the overall tourism condition of Ulleungdo and Dokdo would be

examined and the ways to activate tourism and to increase awareness of Ulleungdo and Dokdo as well as to increase the national and global demand for tourism, would be explored. In addition, coordinated tourism with Gangwon-do that has 2 passenger terminals, mostly used terminals which played a leading role protecting Ulleungdo and Dokdo, would be examined and ways to prepare for the upcoming marine culture tourism era and the Winter Olympics at Pyeongchang in 2018 would be presented.

Constructing the base for healing tour using unique tourism resources of Ulleungdo and Dokdo and developing products are urgent matters. In Ulleungdo, longterm stay type tourism products must be provided by constructing tourism sites using local food such as wild edible greens and seafood, as well as unique housings such as Tumakjip. To do so, tourism developing concepts considering the region's natural ec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hould be defined and the autonomous operation by the residents should be possible.

Gangwondo, Ulleungdo, and Dokdo should be connected and the tourism should be activated using the following approaches: promotion of Ulleungdo and Dokdo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s such as connecting sale of Ulleungdo specialty products, joint use of local currency, building tourism belt connecting Obun Port in Samcheok City, Gangwon-do, Sogongdae, New millenium road, and Jeongnajin, providing new tourism product by opening ship's course at night, expansion of education target and obligating education concerning Dokdo in educational institution in Gangwon-do.

KEY WORD

present condition of tourism resources, tourism facilities, tourist sites, tourism products, promotion and education activities